



12년

국창 권삼득 문화브랜드와 추진 '첫걸음'

전주매일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음 7월 30일) 제3579호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지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무주반딧불축제부터 순창장류축제까지

하반기 도내 축제 '풍성'

전북자치도, 축제 개최 준비 박차... 지역별 맛·멋·즐거움 전문가와 기획

'3無 축제'로 관광객 유치 확대... 야간 프로그램 마련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전국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내실있는 지역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이 가진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정체성을 살린 우수 축제를 육성하여, 전북을 세계적인 축제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하반기 축제들은 지난달 31일에 개막한 무주반딧불축제를 시작으로 레드푸드페스티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10월 5~8일), 군산우체통순편지축제(27~28일) 등 다양한 축제들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이어 본격적인 축제의 계절 10~11월에는 김제지평선축제(10월 2~6일), 전주비빔밥축제(10월 3~6일), 군산시 간여행축제(10월 3~6일), 정읍구절초꽃축제(10월 3~13일), 진안홍삼축제(10월 3~6일), 임실N치즈축제(10월 3~6일), 남원홍부채(10월 4~6일),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10월 4~6일), 고창모양성제(10월 9~13일), 순창장류축제(10월 11~13일) 등 10개 시군의 대표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 지역의 맛과 멋, 풍성한 즐길거리를 가득한 프로그램들을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며, 이미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각 축제에서 안전사고, 일회용품 사용, 바가지요금 없는 '3무(無) 축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색채의 조명을 활용한 야간경관과 미디어아트,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전복을 찾는 관광객이 야간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다채롭고 풍요로운 상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각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지역 상품권을 제공해, 축제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하반기 축제의 주요 행사로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있다. 이 축제는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4 퍼니클러워즈에서 '에코투어리즘 축제'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친환경 축제로 인정받았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전시와 체험, 공연, 드론 쇼, 낙화놀이, 디지털 불꽃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며, 글로컬 축제 도약을 위한 외국인 방문객 초청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레드푸드 페스티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는 한우, 사과, 오미자 등 붉은 이미지가 중심이 되는 농특산물과 장수 가야 철기 등 붉은색 컬러를 테마화한 대한민국 최초의 'Red color festival'이다. 이 축제는 다양한 레드푸드존과, 우수농산물관매진, 전국가죽요리대회 등 오감만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지평선축제는 라이스쇼(가무살), 맛보자고 컴페티션(대표 맛집 선정), 유등, 팍팍(떡주와 꼬치구이), 대지아트 집라인 및 글로컬 버베기 체험, 대동 한마당과 연계한 지평선 낙화 쇼 등 지역 특화 품목을 활용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화 음식 부스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김제 지역 맛집 9곳의 대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일 계획이다.

임실N치즈축제에서는 웨프와 함께 국가대표 대형 쌀피자 만들기, 치즈경매, 쪽쪽늘려내치즈 체험과 풍요 요리 체험행사가 있으며, 축제 10주년 특별 이벤트로 숙성치즈 굴리기 게임을 통한 순금 행운 이벤트를 진행해 관광객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전주비빔밥 축제, 고창모양성제 등 각 지역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담은 다양한 축제들이 기획되어 있

으며, 전북자치도는 각 시군의 특색 있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전북의 우수한 자연환경,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 그리고 지역 대표 음식을 널리 알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격적인 축제 시즌에는 지역축제와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전북투어버스 운영으로 외래 관광객들이 전북의 맛과 멋을 즐기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전북 축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제3차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3차 습지보전실천 계획(2025~2029)'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약 5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내륙습지(318개소, 171km)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습지보전실천 계획(2020~2024)'을 바탕으로 국내·외 습지 정책, 국가 습지 기본계획(2023~2027), 국제협약 등 새로운 환경 여건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춤형 습지 보전·관리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국내외 습지보전 정책 및 계획 분석 △습지 현황 및 관리현황 분석(SWOT) △중장기 목표 및 전략 수립 △산정계획·부문별 보전 시책 및 사업계획 발굴 등이 포함된다. /이만호 기자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지난달 31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막을 올린 가운데, 입장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 여행'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개막

8일까지 환경 탐사·체험·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진행

3無 축제에 더해 지역축제 최초 ESG 개념 도입 '눈길'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지난달 31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 30분 무주군태권도시범단과 중국 등봉시 소림무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입장 퍼레이드와 개막식, 그리고 안성낙화놀이를 비롯한 드론쇼와 불꽃놀이, 레이저쇼, 별빛타리 등이 어우러진 밤의 향연 등이 진행됐다.

무주군청에서 등나무운동장(개막식장)까지 이어진 입장 퍼레이드에는 6개 읍·면 주민들과 무주가족센터, 농악팀, 그리고 무주군 향우회 회원 등 300여명이 함께 해 축제 분위기를 북돋웠다.

주민들은 "무주사람으로서 반딧불 축제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데 큰 기쁨을 느낀다"라며 "9일간의 여정이 모두에게 좋은 에너지와 추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개막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오

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등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장과 자매결연 자치단체장 등 1만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정말 잘 오셨다"며 "올해는 3무 축제에 더해 모두가 동참하고 실천하는 친환경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축제 최초로 ESG 개념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축제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축제를 통해 관광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 환경축제로 걸맞은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열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시작된 주제공연은 제1막 '태초의 빛', 제2막 '반딧불', 제3막 '카오스', 제4막 '오염', 제5막 '정화'를 통해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지향하는 무주반딧불축제 영상과 공연, 특수효과로 선

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개막 축하공연 무대에는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올라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남대천에서는 별빛타리를 배경으로 무주 안성낙화놀이와 드론쇼, 불꽃놀이, 레이저쇼가 이어지는 '반디 빛의 향연'이 펼쳐지며 개막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관광객 송모(45, 세종)씨는 "매해 오는데 올해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라며 "소품 하나 시설 하나까지도 친환경에 포커스를 맞춘 세심함이 엿보여 정말 놀라웠다"고 했다. 대천에서 왔다는 소모(38)씨도 "친환경 실천 미션을 달성하고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부터 곳곳의 빛 조형물들과 페널수막으로 만든 그늘막, 쓰레기 수거함 조형물 등 모든 게 다 흥미롭고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에는 오는 8일까지 9일간 등나무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환경 탐사·체험·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기본으로 자연특별시 무주브랜드를 강화하고 대표 생태환경축제의 정체성 또한 확립한다는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8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2024. 9.5.(목) ~ 9.8.(일) 4일간
장수읍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

RED FOOD FESTIVAL

빨간 맛으로의 초대

주최 장수군 | 주관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중소기업부 | 전북특별자치도 | 2024 동행축제